

# CONCEPT

vol. 097

월간 현대건축  
MAY 2007

INTERNATIONAL MAGAZINE OF COMPETITION

SKM ARCHITECTS \_ Ken Min Sungjin

The 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JDS Architects

배재대학교 유아교육센터

동대문구 수련원

재천시 교동사무소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ISSN 1288-4262

# JDS Architects

JDS Architects is a multidisciplinary office that focuses on architecture and design, from large scale planning to furnitures. Rich of multiple expertise the office is fueled by talented designers and experienced architects that jointly develop projects from early sketches to on site supervision. All of which, independently of scale outlines an approach that is affirmatively social in its outcome, enthusiastic in its ambition and professional in its process. At the core of our architecture is the ability to take a fresh look at things through experienced eyes. Their approach aims at turning intense research and analysis of practical as well as theoretical issues into the driving forces of design. By continuously developing rigorous methods of analysis and execution, JDS Architects is able to combine innovative thinking and efficient production.

JDS Architects is founded and directed by Julien de Smedt, Co-founder of plot. PLOT was founded in Copenhagen in January 2001 by architects Julien De Smedt and Bjarke Ingels. PLOT was founded in order to develop an architectural practice that turns intense research and analysis of practical as well as theoretical issues into the driving forces of design. The 1st of January 2006 Bjarke Ingels and Julien De Smedt decided close down PLOT after exactly 5 years of fruitful collaboration.

제이디에스 아키텍츠(JDS Architects)의 대표 건축가 줄리앙 드 스메트(Julien De Smedt)는 비로케 잉겔스(Bjarke Ingels)와 2001년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PLOT이라는 이름으로 건축 디자인 활동을 시작했다. 덴마크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에서 실험적인 건축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들은 지난 2006년 1월, 개개인 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보고자 하는 진보적 후퇴를 경상하고 줄리앙 드 스메트는 제이디에스 아키텍츠(JDS Architects), 비로케 잉겔스는 비로케 잉겔스 그룹(Bjarke Ingels Group-BIG)이라는 각자의 사무소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길을 택하게 된다. 이번 달 본지에 소개될 제이디에스 아키텍츠는 국내에서의 인지도는 미비하나 범상치 않은 디자인 철학과 실험적 건축으로 세계 곳곳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줄리앙 드 스메트는 이렇게 단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이유를 '자연을 제한을 두지 않은 실험적 경험'과 '도시와 인연을 위한 실험적 디자인'이라고 말한다.

1980년 중국에서 제일 먼저 경제특구로 지정된 덕분에 홍콩에서 중국대륙으로 출입구 역할을 하는, 해국간 고층건물들로 정체성을 잃은 지 이미 오래인 선전(Shenzhen)에 계획된 '자연을 논리가 유입되는 도시(Shenzhen Logistic City)'는 이러한 그의 건축적 고민을 엿볼 수 있기 충분하다. 상업시설의 기본 목적 중 하나인 돈의 가치보다는 건축물의 주화인 이용객을 비롯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디자인에 넣었다. 본지는 이번 프로젝트 통해 그들이 약속하는, 건축가로서 도시인들을 위해 충분한 배려, 건축가의 본연의 역할, 실험하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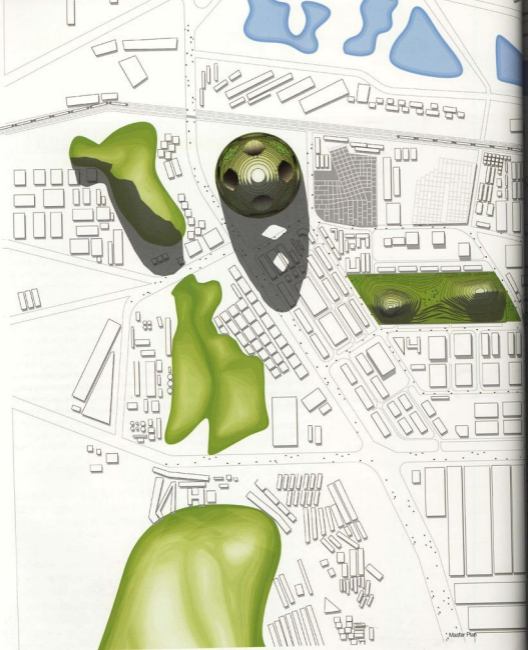
포이머 기자 maeyo0516@yesho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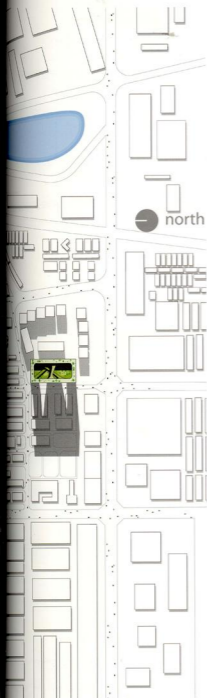


# Shenzhen Logistic City \_ Shenzhen, China

자연의 논리가 유입되는 도시 \_ 선전, 중국



Master Plan



Concept Process

**Location** Sherzhen, China **Project** 1,111m & 666m High Tower and a Shopping Centre **Size** 3,600,000 m<sup>2</sup> **Type** Commission **Status** Ongoing **Project Team** Julien de Smedt, Charlotte Truwant, Andrew Griffin, Andy Varrn, Alexandros Geroussis, Barbara Cost, Erica Osterlund, Federica Pedrini, Felix Luong, Jussi Vuori, Kamilla Heskje, Nicolas Kirsic, Pascal Babey, Ragnhildur Kristjansdottir, Stefan Busch, Therese Wallstrom, Yi-Chen Lee, Yuan Li

The mountains have been made part of city planning and are making up 'rules' and 'logic' of how the city is expanding and where it is developing. This creates a unique characteristic for the project - and even a brand value. We've been requested to design projects that are, in scale, non-contextual: towers standing 1,111m and 666m high and a shopping mall - commercial district. This massive urban intervention will, however, be used as a tool for reforestation in the city. It is our obligation to consider green space as the main aspect of the buildings; therefore, we are -insert the mountain experience: ascending and descending paths, traversing the crevasse, navigating both gradual and steep slopes, and the proliferation of plant life wrapping the buildings. For the 1,111m tower the design comes from a mix of structural issue and uses. It allows us to artificially bring together the qualities of an urban environment. Lifted public space surrounded by program, like shops offices housing public program. Finally, we used the holes, in between the programmatic structure to create energy with wind turbines. As a result, the building is a self-sustainable vertical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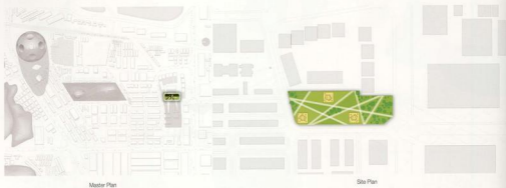
Written by JDS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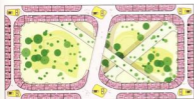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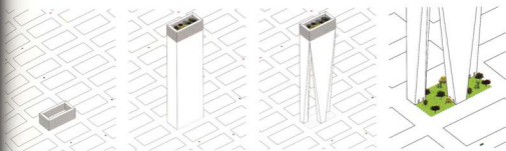
신은 도시 계획의 부분이 되었고 도시의 팽창 방식과 개발 예정지를 선정하는 '법칙'이자 '논리'를 구성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 프로젝트 고유의 특성인면서 심지어는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 한다. 우리는 규모면에서 그 배경과 무관한 설계 프로젝트를 의뢰받았다. 즉, 높이가 각각 1,111m와 666m에 이르는 타워이자, 쇼핑몰·상업 지구를 설계하는 것이다. 도시 경관에 이런 대형 건물이 세워 들게 되면서 동시에 도시의 재식량(再植糧)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자 한다. 그러므로 건물의 주된 경 관으로서 녹지를 고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는 오르막, 내리막, 등산로, 벼위 틈 같은 자연기, 완만하거나, 급경사 지대를 통과하기 그리고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식물들의 번식 등의 등산 경 향을 다시 응용했다. 높이 1,111m의 타워 설계안은 구조적 문제와 풍도의 조합에서 탄생했다. 이로써 우리는 인위적으로 한 도시 환경의 특성을 한데 모아볼 수 있게 되었다. 주상복합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에워싸인 고품격 공적 공간. 결국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풍력 발전용 터빈을 이용하고자 이 구조 물 사이에 있는 틈을 이용한 이 건물은 에너지 자급형 수직 도시다.

글 / 제이디에스 아키텍츠

## Project A - Crevasse

프로젝트 A - 도시의 틈





3rd Floor Plan



2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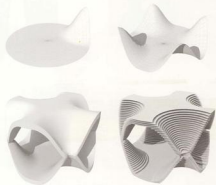
1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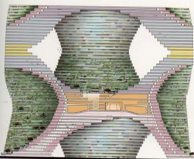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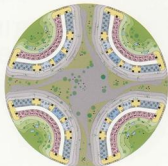
## Project B - Mountain

프로젝트 B - 도시의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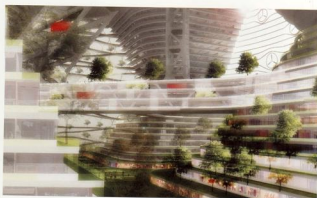




Section



Typical Floor Plan



## Project C - Hill

프로젝트 C - 도시의 언덕

